



한층 진화한 창작무용극 '순력' 을 만나다

'탐라순력도' 기반 도립무용단의 지난해 정기 공연작 '순력' 음악, 무대, 내용 더욱 다채로워진 '순력-바람의 기억'으로 이달 25일 다시 문예회관 무대에... 전통과 현대 춤 교감 주목

지난해 제주도립무용단이 정기공연으로 선보여 호평받은 창작무용극 '순력'이 한층 진화해 다시 도민과 만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도립무용단 기획공연으로 이달 25일 오후 4시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창작무용극 '순력(巡歷)-바람의 기억'을 올린다.

제주문예진흥원이 "주제와 음악, 무대 및 내용 면에서 한층 다채롭게 진화시켰다"고 소개하듯 현대 감각에 맞게 강화된 스토리텔링에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창작무용극 '순력'은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를 기반으로 순력도에 담긴 320년 전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정서와 이야기를 현대의 감각에 맞는 컨템포러리 전통무로 재탄생시킨 무용극이다.

옛 탐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라장축'을 시작으로 공연에서 밤 뱃놀이를 즐기는 '병담범주', 성산일출봉에서의 붉은 일출을 담은 '성산관일' 등 크게 일곱 장편의 화려하고도 담백한 제주 춤의 원형과 제주의 정취가 극적으로 구성됐다.

지난 '순력' 공연이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제주의 풍경을 바탕으로 정재와 민속춤의 제주적 원형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 '바람의 기억'이란 부제를 단 '순력'은 320년 전 제주의 문화원형에 현재의 우리의 춤과 감각을



지난해 무대에 올린 제주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순력' 한 장면.

집중시켰다.

전체 흐름은 탐라순력도를 보던 오늘날의 화공이 바람을 타고 되살아난 320년 전 그때의 향기를 쫓아 탐라 곳곳의 모습을 순력하는 스토리로 진행된다. 320년 전 탐라 곳곳의 행사와 함께 묘사된 연회 장면과 춤사위를 이수자들에게 전수받고, 여기에 도립무용단 김혜림 예

술감독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구현한 춤사위들의 절묘한 대칭을 마주할 수 있다.

관람료는 2500원에서 5000원이며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 예매는 8일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폐막 앞둔 제주비엔날레 즐길 마지막 기회

도립미술관, 오는 10-12일 3일간 무료 관람 특별행사

이달 12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제3회 제주비엔날레 전시장이 무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비엔날레 무료 관람

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 관람은 주제관인 제주도립미술관 또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무료입장권을 수령한 후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매표마감은 오후 5시)다.

제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전시기간 내 위성 전시관인 제주국



제평화센터와 삼성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나연 도립미술관장은 "며칠 남지 않은 제주비엔날레를 더 많은 관람객이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첫선을 보인 후 우

여곡절을 겪다 5년 만인 지난해 다시 찾아온 '제3회 제주비엔날레'는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을 주제로 16개국 55명(팀)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165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는 12일 89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개막 일인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제3회 제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2개 주제관(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을 찾은 총 관람객 수는 5만574명(유료 3만338명, 무료 2만236명)으로 집계됐다. 오은지기자

우당도서관 개관 39주년 기념행사 다채

이달 17일 도서관 일원에서 강연·책 나눔·전시 등 열려

올해 개관 39주년을 맞은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다채로운 기념행사

를 준비했다.

이달 17일 도서관 강당과 로비 등 일원에서 도서관이 마련한 강연, 책 나눔 마당 이벤트 및 전시 행사가 펼쳐진다.

강연은 김진철 작가의 진행으로

장승연, 부복경, 김란, 양순진, 김정희 제주동화작가와 함께 작품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제주동화 이야기'로 꾸러진다.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현장 접수를 받는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선 책을 사랑하는 독서인들을 위한 '책 나눔 마당'과 '마음에 담은 책 속 명언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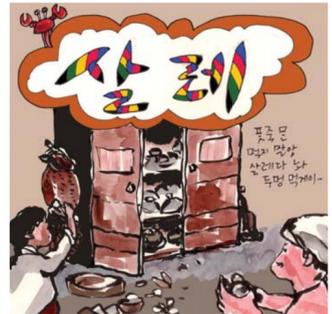
구절'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우당도서관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당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2023 올해의 책 후보 도서 및 역대 올해의 책' 전시도 만날 수 있다. 오은지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담관 <340>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맹이 골맨, "누님, 하르바님이 골암신디양 경의 삼춘네 뜻족이 잘도 맛 좋은 동네 사름들이 하영 강 7저당 먹은텐 흘데다. 경하난 우리 적시 뜻족도 이시건게양, 불찌라 군침이 돌았수다."

○맹이 골맨, "기어게, 뜻족 하영 수엇젠 하난 시꼭말곡게, 아고, ○맹이야, 너가 앞장사사 ㅎ켜게, 아맹ㅎ여도 너가 걸음이 ㅼ르난 너가 나 손 심영 글라."

○맹이 골맨, "에, 이 아래 이신 수계통 살레 ㄹ터데 걸어똥 가계양." ○맹이 골맨, "뜻족 7정오민 흥 번에 ㄹ 먹지말양 ㅎ술랑 살레에 놔두멍 먹게이." 하르바지 골맨, "아여 나사라, 경의 삼춘신디 인스 잘 ㅎ영오라. 고평 걸리지 말 양 이 저슬 펜안ㅎ게 잘 지뎡생 ㅎ라."

* 제주어 풀이

- * 골암신디양 : 말하는데요.
- * 잘도 맛 좋은 : 맛이 너무 좋아서. *사름들이 하영 강 : 사람들이 많이 가서.
- * 7저당 먹은텐 흘데다 : 가져다가 먹었다고 해요.
- * 경하난 우리 적시 : 그러니 우리 똥이.
- * 이시건게양 : 있겠네요. * 불찌라 군침이 돌았수다 : 벌써 군침이 돌아요.
- * 하영 수엇젠 하난 : 많이 수었다고 하니. * 시꼭말곡게 : 있고 말고.
- * 앞장사사 ㅎ켜게 : 앞으로 나서야 되겠다. * 아맹ㅎ여도 : 어땀던간에.
- * 걸음이 ㅼ르난 : 걸음이 빠르니.
- * 너가 나 손 심영글라 : 내가 내 손을 잡고가자.
- * 수계통 살레 ㄹ터데 : 수계통을 찾장 옆으로.
- * 걸어똥 가계양 : 걸어두고 가요. * ㄹ 먹지말양 : 다 먹지말고.
- * 살레(살강, 살래) : <이름>네모지게 간단하게 짜서 부엌 곁에 세워놓고서, 간단하게 반찬이나, 식기 따위를 넣어두는 가구. 찬장.
- * ㅎ술랑 살레에 놔두멍 먹게이 : 조금은 찬장에 뒀다가 먹자.

고재만 화백(전문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샌드아트로 보는 제주이야기 II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23년 상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입단 오디션은 3월 4일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이뤄진다. 모집부문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등이며, 자유곡 1곡을 평가한다. 도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3월 2일까지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샌드아트로 보는 제주이야기II' (남선비와 여산부인, 삼성신화, 삼천년을 산 사만이, 사계절의 여신 오늘이, 지장야기)'를 제작해 도내 초등학교 등에 배부한다.

연합회는 "제주의 옛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창의력과 상상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직항전세기

제주 ↔ 필리핀/마닐라 3박4일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85만) 골프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항공권 69만원 (한정판매)

추가좌석 확보 마감임박!!

02. 25(토) ~ 02. 28(화) 출국 20:45-23:15 귀국 16:00-20: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가트피등
 불포함사항: (관광)가이드&기사팀, (골프)캐디팀(18홀/\$2), 매너팀, 개인비용 *전세기의 경우 영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